

文, 14개 광역단체 1위...557만표역대 최대 표차 당선

대선 최종 득표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 구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입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특히 득표율은 41.08%로 과반 달성에 실패했지만 대구, 경남·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득표율 1위에 올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개표 마감 결과 총 3267만21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3800표로 전체의 41.08%를 득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85만2849표(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만8342표(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8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1만7458표(6.17%)로 집계됐다.

군소후보 중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4만2949표(0.13%), 무소속 김민찬 후보 3만3990표(0.10%),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2만7229표(0.08%), 국민통합당 장성민 후보 2만1709표(0.06%),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1만1355표(0.03%),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 9140표(0.02%), 경제에국당 오영국 후보 6040표(0.01%) 등의 순으로 득표했다.

5자 구도에 과반 달성 실패

광주 61.14%, 전남59.87%

접경 강원서도 홍준표 따돌려

문 대통령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 경남·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역에서 득표율 1위에 올랐다.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후보가 광주, 전남·북에서만 1위 자리를 얻지 못했듯 지역주의의 장벽은 여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42.34%)·인천(41.20%)·경기(42.08%)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홍 후보는 20.78%·20.91%·20.75%를 기록했다. 2위를 한 홍 후보는 22.72%·23.65%·22.91% 등을 획득한 안 후보에게 졌다.

호남에선 문 대통령이 과반 득표율 안 후보를 압도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61.14%)·전남(59.87%)·전북(64.8%)을 기록했지만 안 후보는 광주(30.08%)·전남(30.68%)·전북(23.76%)에 그쳤다. 전북은 문 대통령의 17개 광역시도 지역별 득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홍 후보는 광주에서 1.55%

를 얻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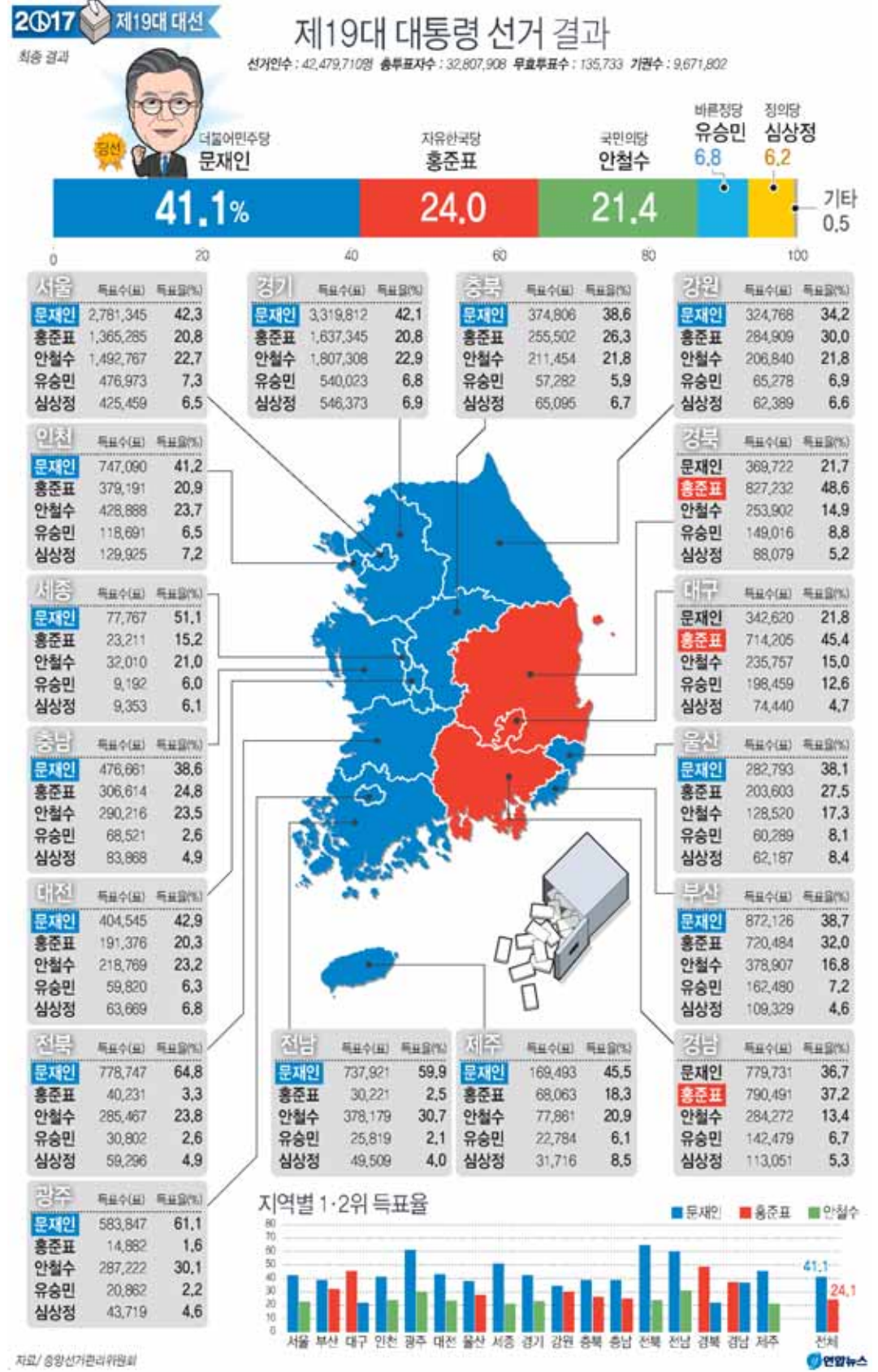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대전(42.93%)·세종(51.08%)·충북(38.61%)·충남(38.62%) 등 중원에서도 홍 후보를 압도했다. 홍 후보는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에서 각각 20.30%·15.24%·26.32%·24.84%를 기록하는데 머물렀다. 안 후보는 23.21%·21.02%·21.78%·23.51%였다.

보수의 안방인 영남에선 홍 후보가 약진했지만 과반 득표한 곳은 없었다. 문 대통령도 선전한 데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로 표가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경남에서 각각 21.76%·21.73%·36.73%를 차지했으며, 홍 후보는 45.36%·48.62%·37.24%를 기록, 보수층 안방인 이른바 TK지역에서 선전했다. 안 후보는 14.97%·14.92%·13.39%를, 유승민 후보는 12.60%·8.75%·6.71%를 획득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연고가 있는 부산과 울산에선 각각 38.71%, 38.14%를 얻어 홍 후보(31.98%, 27.46%), 안 후보(16.82%, 17.33%)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 외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인 강원에서도 34.16%로 홍 후보(29.97%)를 이겼고, 제주 역시 45.5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文, 27개 시군구 전지역서 압승... 安, 진도·강진·신안서 선전

광주·전남 시군 정당별 득표율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전남 시·군·구 모든 지역에서 압승했다.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과 한판 승부를 벌여 참패한 지역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꺾이는 진검 승부가 예상돼 초미의 관심을 불러왔던 곳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애초 예상과 달리 전략적 선택을 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안 후보를 상대로 가볍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 득표율은 각각 61.14%와 59.87%로 30.08%와 30.68%를 차지한 안 후보보다 31.06%p, 29.19%p 높았다.

문 대통령은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모든 지역에서 안 후보를 따돌리고 압승을 거뒀다. 이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67.81%를 차지한 순천이었다. 이어 광양(66.15%)·광주 광산(64.27%)·여수(63.63%)·구례(63.11%)·나주(61.76%)·광주 북구(61.06%) 등의 순이었다.

안 후보는 전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진도·강진·신안지역에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

다. 안 후보는 이 지역에서 42.14%, 40.59%, 41.74%를 각각 기록, 49.46%, 49.89%, 49.98%를 차지한 문 대통령과 격차가 7.32%p, 9.40%p, 8.24%p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국회의 원 의석 수 18석 중 16석을 차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야권 심장부에서 그간 국민의당과 경쟁했던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낙연 총리 내정... 내년 전남지사 선거 입지자 발걸음 빨라져

이낙연 전남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전남 지사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는 10일 총리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과 인준동의 절차를 따르기 위해 12일 지사를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가 사퇴하더라도 따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 선출직 보궐선거를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이미 지난 4월 12일 선거가 치러졌고, 내년 4월이면 전남지사 선거 임기가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지사는 내년 6월 13일 본 지방선거에

서 선출하게 된다. 이 기간 중 김갑성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밖 전남지사 공백으로 인해 향후 정국 변수에 따라 도지사 입지자들의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야권 심장부에서 그동안 국민의당과 경쟁했던 민주당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로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전남도정을 펼치는데 집권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기호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친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한 전남지역 의원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역시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김영록 전 국회의원도 거명된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 완패한 국민의당은 당 상황을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어 현 재로선 유력한 도지사 후보를 점치는 쉽지 않다.

2014년 도지사 선거 때 도전했던 주승용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후보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권 외에 '참신한 인물' 영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현역 국회의원의 벽을 넘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美 트럼프, 문대통령 대화 기대 시진핑, 한중 개선 메시지 축전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9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당선인과 만나,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손 스페이스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다. 스페이스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관련기사 8면>

그는 이어 한미 정상간 대화를 기다리고 있

며, 관련자료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곧 문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와 이렇듯 지진을 시사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전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보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를 하면서 "한·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다.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되도록 빨리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화정역 100m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사거리] 누구나 임대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독점하다!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신분부관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청을 물론 해남고, 해남중학교, 해남중, 해남제일초,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복합 테마상가

- 푸드, 의류, 의료, 미용, 학원, 편의점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 복합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상품!
-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불가 상품!
- 두번치 수입 [1] 프리미엄 기본!

확실한 선택!

분양·임대 **1577-1901**

새마을 1+1이금상

신보통합건설(주)